『영어영문학연구』 제48권 제2호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2022) 여름 47－66 http://dx.doi.org/10.21559/aellk.2022.48.2.003

아프리카의 기독교 신학
－응구기의 『마티가리』를 중심으로

서 은 주
(전북대학교)

Seo, Eunjoo. "African Christian Theology Focused on Ngũgĩ wa Thiong'o's *Matigari*."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8.2 (2022): 47-66. This article analyzes the biblical and Christian thematic elements in Ngũgĩ's novels, which are central in his storylines. The author takes a critical stance towards European-Christian culture, whose influence in colonial Africa is significant. In the stories, Ngũgĩ recounts the struggles in his native Kenya, beneath the backdrop of English faith and dogma. This dissonance of cultures fighting is reflected in the writer's own upbringing, becoming evident after he had realized that his Christian baptismal name of James, could no longer represent the culture of his people. His name change to Ngũgĩ wa Thiong'o symbolizes this necessary transformation in his evolution to renowned author. Intimately familiar with the Christian doctrine, he draws heavily upon the biblical framework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and invokes the thematic imagery of the Bible, such as the Garden of Eden, Adam and Eve, the Last Supper, the Death on the Cross,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and the Virgin Mary in his novels. Christian imagery is especially apparent in the novel *Matigari*, whose main characters, Matigari and Guthera, can be compared to Jesus and the prostitute Mary Magdalene. In digesting this imagery from Ngũgĩ, the reader may begin to conclude that the Christianity of the imperialist has been but a tool, used to distort the truth, for the sake of cultural subsump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Ngũgĩ wa Thiong'o, African Christian Theology, Bible, Jesus Christ, Mary Magdalene

I. 서론

응구기 와 시옹오(Ngũgĩ wa Thiong'o)는 영국제국이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전파한 종교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도였고 그 이미지를 소설에 반영하고 있기에 "종교 작가"(*Homecoming* 31)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때 기독교도였던 그는 "어릴 적 어머니의 권고로 종교와 상관없이 교육을 받기 위해 다녔던 위대한 아프리카 학자들의 고향이자 보육 기관"(Mandela 38), 즉 식민지 아프리카 지식인들을 배출하는 양성기관으로 알려진 미션스쿨에 다녔기 때문이다. 그렇게 영국제국의 미션스쿨은 아프리카인의 신교육을 담당한다는 명목하에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70%에 달하는 아이들에게 기독교를 전파"(Sicherman 33)하고 있었다. 응구기는 그 영향을 받은 이들 중 한 명으로 "아프리카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종교에 관심을 가진 작가"(Cook & Okenimkpe 34)라는 비판을 받는다.

종교 작가라는 비판에 걸맞게 응구기의 소설에는 영국제국이 케냐를 식민지화한 시대적 · 사회적 성향과 맞물려 기독교 이미지가 묘사되고 있다. 그 이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울지 마, 아이야』(*Weep Not, Child*, 1964)는 기독교의 초기 도입 과정을, 『샛강』(*The River Between*, 1965)은 기독교와 전통 종교의 마찰로 인한 분쟁을, 『한 톨의 밀알』(*A Grain of Wheat*, 1967)은 강력한 기독교 전파에 대한 경고를 보여준다. 그리고 십 년 후 "1976년 공식적으로 기독교 신앙과 세례명을 버리고"(Black 1719) 발표한 『피의 꽃잎들』(*Petals of Blood*, 1977)은 기독교 악행이 낳은 부당한 부와 권력의 축적을, 『십자가 위의 악마』(*Devil on the Cross*, 1982)는 기독교를 악용하는 피폐한 사회의 병폐를, 『마티가리』(*Matigari*, 1987)는 부도덕함으로 가득한 사회를 구원할 지도자의 출현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응구기는 제국이 아프리카를 식민화하는 데 기독교 이미지를 기능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응구기의 소설 중에서도 『마티가리』에 등장하는 애국자 마티가리(Matigari)와 창부 구테라(Guthera)의 행보는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형상을 따라 한듯한 이미지로 가득하여 기독교 신학을 기반으로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다. 응구기는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독교 신학을 이용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방식대로 성서를 재해석하고 도용하여 아프리카인들이 극단적인 식민주의에 저항할 수 없게 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단서를 제공하는 그의 소설은 “창작 작품이지만 탈식민주의 이론서를 대표하여 성서의 이미지와 우화를 주요 담화로 사용하고 전복시킴으로 유럽 중심의 식민주의 체제에 대항”(Kgalemang 218)하고 있다. 따라서 응구기의 작품은 허구가 아닌 식민지 문학 이론을 심도 있게 파헤친 식민지 아프리카의 문학 이론서라는 측면에서 기독교 신학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응구기의 소설에 나타난 아프리카의 기독교 도입 과정, 전통 종교와의 충돌, 부족의 갈등을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탐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 아프리카에 도용되었던 성서의 해석학적 측면과 기독교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가 암시하는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응구기는 소설 속에서 케냐 기쿠유(Gikuyu) 부족이 제국의 기독교를 수용하고 거부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독교를 아프리카식으로 재해석하여 저항과 반전을 꾀할 뿐 아니라 아프리카식 식민주의 담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II. 아프리카의 기독교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성서를 해석한 고스넬 요크(Gosnell L.Yorke)는 “에덴동산이 아프리카와 관련이 있으며 아담과 이브는 아프리카인이었다”(231)고 주장한다. 그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건설한 니므롯이 아프리카인 구스의 아들이며(창세기 10:8-12) 예언자 스바냐는 구스의 아들(스바냐 1:1)로 아프리카인의 역할이 결코 피상적이지 않으므로 구약성서를 아프리카 중심시각에서 재해석할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Yorke 231)고 한다. 기독교의 역사를 체계화한 앨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는 『신학의 역사서』(*Historical Theology*)에서 “기독교는 기원 첫 세기에 북아프리카에 정착했다”(388)고 밝힌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연안을 따라 기독교 교회가 건립되었는데 7세기 아랍의 침략으로 기독교가 소멸하고 토속종교의 장악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유럽의 기

독교는 식민지 침략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에 다시 들어왔다.

아프리카 탈식민지 문학 이론의 대가로 알려진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은 제국주의자들이 "야만적인 흑인의 영혼을 기독교화할 필요성"(111)을 알고 이를 이용하였으며 "침입자들이 총과 성경으로 무장하고 있었다"(113)고 분개한다. 그는 유럽의 침입자들이 "우리(아프리카인)에게 '기도합시다'라고 말했고, 기도 후 백인은 땅을 가졌고 우리는 성경을 가졌습니다"(Mofokeng 34)라고 증언한다. 이러한 재담은 198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주교였던 "데즈먼드 투투(Desmond Tutu)와 케냐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모 케냐타(Jomo Kenyatta)에 의해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널리 알려져 회자되고 있었던 발언"(Paustian 20)이었다고 한다.

아프리카의 식민 담론을 성서와 연계하여 연구한 또 다른 학자들도 "아프리카 문학이 기록이 아닌 말로 전수되는 구전문학인 탓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줄거리와 내용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Shomanah 3)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응구기의 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탐색된다.

> 그들은 예수에 대해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무에 못 박히게 하실 수 있었을까? 백인은 모든 이해를 능가하는 그 사랑에 대해 말했다. 이보다 더 거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는 작고 검은 책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했다. 개종한 소수는 지역의 풍습과 다른 믿음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의 가호를 받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해악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신성한 장소를 밟았다. 곧 사람들은 백인이 자신들의 지위에 부합하는 욕구를 위해 더 많은 토지를 눈에 띄지 않게 획득해 온 것을 알았다. 그는 이미 초가집을 허물었고 더 영구적인 건물을 세웠다. 지역의 장로들은 항의했다. 그들은 백인의 웃는 얼굴 너머를 살폈고 느닷없이 성경이 아니라 총검을 들고 다니는 다른 영국 이방인들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
> About Jesus, they could not at first understand, for how could it be that God would let himself be nailed to a tree? The whiteman spoke of that Love that passeth all understanding.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he read from the little black book,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The few who were converted, started speaking a faith foreign to the ways of the

> land. They trod on sacred places to show that no harm could reach those protected by the hand of the Lord. Soon people saw the whiteman had imperceptibly acquired more land to meet the growing needs of his position. He had already pulled down the grass-thatched hut and erected a more permanent building. Elders of the land protested. They looked beyond the laughing face of the whiteman and suddenly saw a long line of other red strangers who carried, not the Bible, but the sword. (*A Grain* 15)

응구기는 지도에서 영국 영토를 붉은색으로 나타낸 데 착안하여 영국 방문객들을 "붉은 이방인들"(*A Grain* 15)로 묘사하고 그들이 아프리카인들에게 "작고 검은 책"(*A Grain* 15) 성경을 이용해 유혹한 후 본색을 드러내고 총검으로 위협했다고 강조한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A Grain* 18)라는 목사의 말을 순순히 따랐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았고 성경을 읽기 위해 눈을 뜨고 있던 제국주의자들은 그 틈을 타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갔다. 그리고 그들이 눈을 떴을 때, 땅은 사라지고 총검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 패트릭 에브워(Patric Ebewo)는 "선교사들이 왼손에는 성경을 오른손에는 총을 든 것에 대하여 비난받아야 한다"(119)고 주장한다.

초기 유럽 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나비 같은 하얀 옷"(*A Grain* 13)을 입은 목사는 작고 검은 책에 쓰여 있는 사랑 · 용서 · 구원 · 부활을 이야기했다. 기쿠유 부족민들은 하느님의 메신저를 자처하는 "백인들의 혀엔 설탕이 발려 있었고 그들의 겸손함이 감동적이었기"(*A Grain* 13)에 그들을 환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유럽 정착민들은 그들 고향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자 아프리카에 기독교를 들여왔지만 그들의 기독교는 다양하게 복제"(맥그래스 389)되었는데 특히 식민지 내부 침투를 목적으로 유사 복제되고 있었다. 유럽의 기독교 신학을 잘 아는 응구기는 이러한 기독교 만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며 성서의 내용을 아프리카식으로 재해석한다.

응구기가 시도한 아프리카 중심적 성서해석은 부족의 전통 설화와 비유되어 "아프리카 대륙 어딘가에 있었을 에덴"(Yorke 230)을 연상시키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응구기는 구전으로 전수되어 온 기쿠유 부족의 시조로 알려진 기쿠유(Gikuyu)와 뭄비(Mumbi)를 창세기에서 태초의 인간으로 나오는 "아담과 이브로

동일시"(*Weep* 49)한다. 부족의 창조주 무룽구(Murungu)는 "바람과 비, 천둥과 번개만 존재하는 암흑의 세계에 창조주의 나무 무쿠유(Mukuyu) 아래에 기쿠유라는 한 남자와 뭄비라는 한 여자를 놓았는데 그 순간 해가 떠오르고 어둠은 사라졌다"(*Weep* 24)고 한다. 창조주는 남자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기쿠유라 불렀고 부족의 후손들은 "신성한 나무 아래에서 창조주 무룽구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부족의 할례 의식을 치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도들도 그곳에서 크리스마스에 행사"(*Weep* 29)를 치렀다. 다시 한번 응구기는 창조주의 나무를 창세기에 언급된 생명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의 이러한 묘사들은 기쿠유 지역이 "에덴동산"(*Weep* 115)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성서해석에 의하면 에덴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천국이었고 모두가 그곳에서 신을 경배했다. 하지만 이를 탐낸 한 제사장이 정당한 명분 없이 역모를 꾀했고 마귀가 인간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다. 제국이 아프리카를 통치한 것처럼. 초기 유럽의 기독교 선교는 "아프리카 사회에서 변두리에 속한 노예, 여성, 가난한 자들"(맥그래스 389)을 표적으로 겨냥했고 그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기독교로 개종한 아프리카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제국주의자들보다 더한 무분별한 행동을 주저하지 않았다. 응구기는 이를 대표하는 인물로 『샛강』의 조슈아(Joshua)를 묘사한다. 조슈아는 가난한 부족민이었지만 시리아나에 있는 미션스쿨에서 백인의 힘과 마술을 배우면서 그가 살아온 깊은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벗어났다고 여긴다. 기독교를 전파하는 지도자가 된 그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찬양하며 불타는 듯한 영혼의 충만함과 행복감을 느낀다.

조슈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Joshua)라 불리는 신앙 위인으로 '하나님이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뜻하며 모세의 열두제자 중 유일한 후계자로 지목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지도자다. 응구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영국제국의 아프리카 정복에 비유하여 그들의 포괄적이고 계산된 정복계획과 기독교를 전면에 내세운 점진적인 침투와 자연스러운 문화수용을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전략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신의 영감을 받은 지도자 여호수아(조슈아)의 이름을 차용해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도 미션스쿨에서 기독교로 개종 후 교회의 지도자가 된 조슈아를 묘사한 것은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의도된 설정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 원주민 중에서도 기독교 개종자는 국가 독립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고 기독교 선교 활동을 가장한 교회는 "제국주의의 충실한 첨병 노릇"(왕은철 276)을 해왔다. 그리고 미션스쿨의 진정한 목적은 기독교 전파를 통한 제국의 식민통치와 식민지화를 위한 사회통제 기관이었기에 개명은 필수 요건이었다.

> 서구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는 아프리카 지식인들의 문화적 소외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 아프리카 지식인들을 소외시키는 첫 번째 행위로 교회는 케냐 사람들이 야만적이고 미개인으로 여겨지는 아프리카식 이름을 버리고 서양식 이름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 . . 교회는 기독교를 백인의 한 사람으로 과시하기에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서양식 이름을 가지는 것과 같은 서구식 생활 방식을 택해야 한다.
>
> As well as the Western school, the Church has its part of responsibility in the cultural alienation of the African elite. As a first act of alienating the African elite the Church starts by making Kenyan people drop their African names, considered as wild and pagan, to take up western ones. The Church shows off the Christian religion as one of the white man and hence to be a good believer, one has to adopt at first the Western ways of life such as bearing a Western name. (Diaw 64)

이러한 영향을 받은 응구기도 미션스쿨에서 세례성사 때 부여받은 세례명 제임스(James)라는 서구식 이름을 사용했었다. 그래서 그의 소설 『울지 마, 아이야』, 『샛강』, 『한 톨의 밀알』은 '제임스 응구기'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하지만 응구기는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원주민들의 정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며 "기독교 신앙을 포기"(Ebewo 116)하고 기쿠유 부족의 작명 방식에 따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의 소설 『피의 꽃잎들』, 『십자가 위의 악마』, 『마티가리』는 '응구기 와 시옹오'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고 기독교에 대항하는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그의 반기독교 사상은 제국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고 이름 변경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문서상의 집필자 명의 변경이라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

인 동시에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응구기는 “유럽을 중심으로 신학을 연구한 서구 신학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근본적 거부”(Yorke 223) 의사를 밝힌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성서를 아프리카 중심으로 재해석하며 제목에서부터 반기독교 이미지가 강하게 연상되는 『십자가 위의 악마』라는 작품을 남겼다. 이 소설은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식민지와 성서의 이미지를 결합한 대표작”(Kgalemang 218)인데, 스토리는 성서에 기록된 “창조-약속-성취-종말 이야기”(이달 14)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응구기는 “성서 신화를 이용하여 선과 악의 추상적 개념을 끌어내기 위해 신과 악마를 병치”(Cook & Okenimkpe 131)하고 제국이 침범한 아프리카에 혼재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Devil* 53)이 공존하는 사회를 그려낸다. 그는 예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진 악마와 지옥의 천사를 대치하여 유럽 제국과 식민지 원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의 본질과 무질서한 개념들을 구체화한다.

말레보구 크갈레망(Malebogoo Kgalemang)은 “심지어 마우마우(Mau Mau) 단원들도 유럽의 기독교 찬송가와 성경을 마우마우 투쟁에 사용했다”(220)고 지적한다. 마우마우는 기쿠유 부족을 중심으로 결성된 케냐의 독립운동 단체 이름인 동시에 독립을 위한 투쟁운동을 뜻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상징한다. 외부적으로는 제국에 대한 독립 투쟁을 의미하고 내부적으로는 인간 삶의 질과 가치를 향상시켜 진정한 아프리카인의 창조적 잠재력을 복원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대부분의 민족 해방 운동은 “억압자의 종교와 문화와 교육체제를 거부하고 그들만의 노래, 시, 춤, 문학을 만들어 지배 계급에 반하는 가치를 구현하는데 마우마우 단체는 그들을 억압하는 유럽 제국의 문화를 투쟁에 사용했다”(Kgalemang 220).

이러한 지적에 대응하여 응구기는 제국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아프리카 식민화에 인용한 것처럼 아프리카인들은 탈식민화를 위해 이를 역으로 인용했다고 주창한다. 그는 “케냐의 민족 해방 마우마우 단체는 그들을 억압하는 유럽 제국의 종교와 찬송가를 사용했지만, 이를 반추하여 그들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식으로 해석하여 식민지 해방 운동에 사용했다”(*Writers* 27)고 밝힌다.

> 그들(마우마우 단원들)은 땅과 권력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더하여 억압자의 문화를 거부했고 반 착취 가치를 구현하는 민중의 구술 문학을 창조했습니다.

> 그들은 기독교 노래를 인용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성서를 받아들였고 성서와 찬송가에 자신들의 투쟁 목표와 부합되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
> On top of demanding back the land and power, they rejected the culture of the oppressor and created a popular oral literature embodying anti-exploitation values. They took Christian songs; they took even the Bible and gave these meanings and values in harmony with the aspirations of their struggle. (*Writers* 27)

이처럼 응구기는 아프리카인들이 유럽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되 제국적 해석이 아닌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변형하여 "아프리카식 기독교"(Esseko 131)를 재창조했다. 이를 호미 바바(Homi K. Bhabha)의 '탈식민 모방' 이론으로 설명해 보면, 아프리카 식민지인들은 제국의 기독교를 수용하고 이를 역으로 이용해 되돌려주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을 모방하는 "식민지인들의 흉내내기가 저항이나 전복의 가능성을 지녔기에 지배자들의 권위를 위협하고 그들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 수 있기"(박종성 59) 때문이다.

응구기는 유럽인들이 기독교 신학을 아프리카에 전파할 때 올바른 성서적 이해와 해석을 왜곡하여 그들의 편의에 따라 아프리카 식민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음을 폭로하는 동시에 그들을 답습하고 모방하여 탈식민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응구기는 기독교 신학에 아프리카식 의미를 부여하고 아프리카식으로 변형하여 식민지에 뿌리내린 유럽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되돌려 갚아주는 지피지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III.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마티가리』의 주인공 마티가리는 억압된 신식민 사회를 구원할 기독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닮은 형상이다. 그는 당대 사회에 만연한 종족 갈등, 범죄, 부정부패, 인권탄압, 종족 갈등, 범죄, 자연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예수 대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의 영웅적 행보처럼 마티가리

의 행보에 놀란 독재자 대니얼 토로이티치 아랍 모이(Daniel Toroitich arap Moi) 대통령은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마티가리가 체포 불가능한 소설 속 주인공임을 알고 분노하여 "책을 체포하라"(*Moving* 175)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마티가리는 케냐 독립운동인 마우마우 운동을 이끈 혁명적인 이미지와 혁신적인 행동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이미지"(Adeoti 10)로 가득하다.

인간 세상을 구하기 위해 재림한 구세주 예수처럼 마티가리는 마우마우 집결지에서 행방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찾아 마을로 귀환한다. 스토리는 길거리에서 경찰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받는 매춘녀 구테라를 구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는 마을을 돌며 쓰레기 더미 차고지에 버려진 어린이들, 매춘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여성들, 떠돌이 노숙자들, 공장 노동자들, 수감자들, 법을 집행자들 등을 만나고 그들을 돕는다. 그는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희망과 용기를 구현하고 진리와 정의를 추구한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죽은 후 세상을 구하기 위해 재림한 예수"(Adeoti 9)의 유사체로 다음과 같이 비추어지고 있다.

>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간이었는가 아니면 신령이었는가? 참 선지자였는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였는가? 구원자였는가 아니면 그냥 괴짜였는가? 마티가리는 남자였는가 아니면 여자였는가? 아이였는가 아니면 어른이었는가? 아니면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단지 이념이나, 이미지였는가? 그는 누구였는가?
>
> Jesus Christ? Was he a human being or a spirit? A true or false prophet? A saviour or simply a lunatic? Was Matigari a man or was he a woman? A child or an adult? Or was he only an idea, an image, in people's minds? *Who Was He?* (*Matigari* 158)

이처럼 마티가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의문의 존재이다. 마을 사람들은 "당신이 재림하신다고 예언된 이"(*Matigari* 156)가 맞냐고 묻자 그는 잠시 머뭇거린 후 "예언된 신은 부족, 인종, 피부색에 무관하게 당신들과 나 그리고 인간 안에 존재한다"(*Matigari* 156)고 대답한다. 이에 더하여 마티가리는 제국주의자들이 신과 함께 있는 아프리카인들을 못 마땅히 여겨 아프리카인을 억압했다고 마을 사

람들에게 말한다. 그는 아프리카인들의 신을 질투하여 앗아가려는 제국의 적에게 신이 맡긴 아프리카의 땅과 노동력을 착취당해서는 안 될뿐더러 아프리카인들 마음 안에 있는 신을 잘 섬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티가리는 자기 손으로 지은 집이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 집을 차지한 제국주의자에 의해 반역죄로 투옥된다. 감옥에서 그는 수감자들에게 "콩 한 알과 와인 한 방울도 나누어야 한다"(*Matigari* 56)고 말하는데, 그의 말을 경청하던 수감자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희망과 용기를 일깨우게 된다. 특히 그가 수감자들과 함께하는 식사 장면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Adeoti 10)한 형상을 하고 있다.

> 마티가리는 음식을 가져다가 쪼개어 그들(수감자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먹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맥주병을 가져다가 이빨로 뚜껑을 열었고, 헌주를 바닥에 조금 붓고 그들에게 마시고 잔을 돌리게 했다.
>
> Matigari took the food,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prisoners). They started eating. Then he took the bottle of beer, opened it with his teeth, poured a little of it on the floor in libation and gave them to drink and pass around. (*Matigari* 57)

마티가리의 행동에 한 주정뱅이는 그의 발아래 엎드렸고 마티가리는 오른손에는 음식을 왼손에는 술병을 들고 성직자가 성서를 읽는 것처럼 말한다. 응구기는 마치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성찬식으로 먹은 빵과 포도주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그(마티가리)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우리의 왕국이 오지 않으면 다시는 함께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빵을 가져갔고 빵을 먹은 후에 말했다: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주고 싶은 내 몸입니다. 이것을 재림 때까지 서로 하십시오. 곧이어 그는 잔을 가져와서 축복한 후에 말했다: 이 잔은 우리가 피로 서로 맺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 And when the time for the supper came, he sat at the table together with his disciples. He told them: I want you to share this last supper with me, to remind us that we shall not be able to eat together again unless our kingdom comes. And he took the bread and after breading it he said: This is my body, which I give to you. Do this unto one another until the Second Coming. He then took the cup, and after blessing it he said: And this cup is a testament of the covenant we entered with one another with our blood. (*Matigari* 57)

수감자들은 마티가리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Matigari* 57)라고 말하면서 진실을 요구하고 감옥에 음식을 들여오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들은 마치 기독교 신학에서 제시된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빵과 포도주를 주식으로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시킨다. 스토리는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기적이 감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한다.

이처럼 응구기는 성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행위를 실행하는 마티가리를 묘사하고 있다. 지리학적으로 예수가 유년 시절을 보낸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북부 대륙에 속하기에 응구기가 "아프리카 중심시각으로 예수상을 재형성하는 것은 타당"(York 233)해 보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요크는 "예수가 케냐의 기쿠유 부족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색인종처럼 진한 갈색"(232-233)이었다고 강조하며, 유럽 중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성서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은 마치 성서에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인이 언급되지 않은 것처럼 무시하고 그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4년에 티비에스(*TBS*)에서 흑인 건달을 예수로 설정한 드라마가 방영을 앞두고 미국 사회에 풍파를 낳은 적이 있다. 코믹 드라마 '흑인 예수'는 구세주 예수가 검은 피부의 흑인이라는 파격적인 설정으로 인해 기독교계는 방영 취소를 요구하며 거센 반발을 했다. 이는 성경을 예시로 한 역사적 해석이 항상 편파적으로 백인의 편이었음을 반증하여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1928년 개봉한 영화 「녹색 목초지」(*Green Pastures*)는 성경을 주제로 했음에도 예수와 천사가 백인이 아닌 흑인이 등장한다. 미국 소설가인 로악 브래드퍼

드(Roark Bradford)의 『노인 애덤과 그의 아이들』(*Ol' Man Adam an' His Chillun*)을 기반으로 각색된 이 영화는 교육받지 못한 흑인들이 전해주는 성서 이야기를 주제로 한다. 이 영화는 미국의 인종적 고정관념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 전원이 흑인으로 캐스팅되어 영화 흥행 기록을 세웠다. 파농은 이 영화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 녹색 목초지라는 영화에서, 신과 천사는 흑인이다. 하지만 그 영화는 우리의 작가에게 잔인한 충격이었다. "흑인 특성을 가진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이것은 낙원에 대한 나의 비전이 아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 영화일 뿐이었다." 사실이 아니다, 선하고 자비로운 신은 흑인이 될 수 없다. 그는 밝은 분홍색 뺨을 가진 백인이다. 흑인에서 백인으로의 변이과정이다. 백인은 부자이고, 아름답고, 지적이다.
>
> In the film, *Green Pastures*, God and the angels are black, but the film was a brutal shock to our author: "How is it possible to imagine God with Negro characteristics? This is not my vision of paradise. But, after all, it was just an American film." Indeed no, the good and merciful God cannot be black: He is a white man with bright pink cheeks. From black to white is the course of mutation. One is white as one is rich, as one is beautiful, as one is intelligent. (Fanon 36)

이처럼 파농은 예수 그리스도가 흑인일 리가 없다고 단언한다. 유럽의 인종차별 정책은 흑과 백이 인종을 상징하는 언어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검정으로 표현되는 단어는 부정적인 성향의 악과 연결되는 반면에 흰색은 순결한 선을 상징하는 것에서 흑백에 관한 영어식 표현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특히 유럽의 기독교는 "신, 그리스도, 천사와 같은 천국의 하느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순결의 하얀 사제 옷으로 상징하고 죄, 악마, 사탄은 검은색으로 묘사"(*Writers* 15)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유럽 중심적 사고는 아프리카인들이 단지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품고 태어난 사회의 하위적 조건을 충족한 범죄자나 이탈자로 낙인찍는다. 이보다 더한 문제는 식민지에 정착한 백인우월주의 시스템이 아프리카인들에게 검은 것은 나쁘고 미개하고 열등한 존재임을 인정하도록 작동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Ⅳ. 마리아의 이미지

응구기의 소설에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상호 텍스트성”(Kgalemang 218)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Devil* 30)를 칭하는 이름으로 그녀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 동정의 몸으로 예수가 인간 세상에 올 수 있도록 그를 낳고 그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 운반자(bearer of Christ)”(Rubin 4)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동사 ‘bear의 주요 어의는 낳다, 받치다, 견디다, 나르다, 마음에 품다’로 해석되기에 성모 마리아가 단지 예수를 몸에 잉태하여 나르는 운반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를 받쳐주고 그와 함께 고통을 견디며 그를 항시 지지하고 있었음을 함의하고 있다.

응구기의 소설『마티가리』는 이러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구테라를 형상화하며 “오래전에, 처녀 한 명이 살고”(*Matigari* 33) 있었는데 “그녀는 가장 순수한 젊은 여성이었다”(*Matigari* 94)라고 명시하고 있다. 성모 마리아는 특히 천주교에서 헌신, 겸손, 지혜, 순결, 용기, 믿음, 사랑으로 충만한 여성을 상징하는 여성으로 숭배받고 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구약의 예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한다. 당시 마리아는 흔히 쓰이던 이름이라서 성모 마리아를 다른 마리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녀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유명한 또 다른 마리아는 창부로 추정되는 마리아 막달레나(Maria Magdalena)가 있다. 성서 학자들은 그녀가 예수의 유일한 여사제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발치”(요한 19:25-27)에서 그를 지켰으며 승천 후에는 강림을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 예수가 재림 후 그녀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예수 재림을 연상하게 하는 마티가리는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후 마을로 내려와 창부 구테라를 처음 만난 것이다.

유년 시절 구테라는 독실한 기독교도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Matigari* 36)는 기독교의 십계명을 잘 지키며 굳은 신앙심으로 역경을 견디어 내는 “성모 마리아를 상징”(Gikandi 237)하는 여성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는 총알을 운반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감옥을 지키는 경찰들은 구테라의 순결함과 아버지의 석방을

교환하자고 요구한다. 그녀는 아버지의 목숨과 자신의 순결성을 바꾸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십계명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 그리고는 "열한 번째 계명에 따라 경찰에게 절대 다리를 벌리지 않을 것"(*Matigari* 37)이라고 굳게 다짐한다. 하지만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처녀성은 위험에 처한 마티가리를 구하고자 경찰에게 그것을 내어주게 된다. 애국자를 구하기 위한 구테라의 희생은 순결한 몸으로 대의를 위해 예수를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와 유사체다.

구테라가 지키고 싶어 했던 순결함은 아버지를 잃게 했고 그녀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절실한 기독교도였던 그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가난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기에 "굶주림"(*Matigari* 36)을 해결하기 위해 매춘부가 되고 만다. 순수한 매춘부 여성의 이미지는 "선교사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독교도들의 비밀 무기"(Rubin 1)였다. 예수를 잉태한 처녀의 "순수한 자궁"(Rubin 4)은 기독교도뿐만 아니라 비기독교도에게도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매춘부가 된 기독교도 구테라의 이미지는 이제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미지를 상기시킨다.

자코모 다 바라라제(Jacobus de Voragine)의 『황금 전설』(*Golden Legend*)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매춘부 출신으로 예수를 만나서 죄를 뉘우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창부를 근거로 매춘부의 이미지로 낙인찍혔는데 후에 이러한 그녀의 이미지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 조작되었음이 밝혀졌다. 응구기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처음 본 마리아 막달레나"(마르코 16:9-10, 요한 20:14-17)에 구테라를 비유하고 마티가리를 만난 후 죄를 뉘우치며 그와 함께 정의 실현을 우선으로 삼는 여성으로 변화시킨다. 그는 처녀, 동정녀, 성모로 해석되는 기독교 신학의 이미지를 구테라에게 부여하고 매춘에 연루시킴으로 그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는 응구기가 남성들의 "색정"(Fanon 96)에 의해 모욕당할 수밖에 없는 침해당한 순결한 아프리카 여성들의 현실을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여성 침해는 남성의 소유 본능, 이기주의, 공격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여성 성기 훼손(Female Genital Mutilation)이 대표적 본보기다. 아프리카에서도 이슬람을 섬기는 국가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할례의식(circumsition)은 "코란의 가르침에 따른"(디리 305) 야만적인 관습이고 전통이다. 응구기는 부

족의 전통의식인 할례를 소재로 한 『샛강』에서 “기독교와 전통 종교”(Sanjo 14)가 충돌하는 지점에 할례받은 기독교도인 조슈아의 딸 무쏘니(Muthoni)를 등장시킨다. 아버지를 따라 기독교도가 된 그녀는 “기독교에서 금지”(*A Grain* 99)하는 부족의 전통에 따른 할례를 받는다. 이후 그녀는 기독교에서 악으로 간주되는 할례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을 보았어”(*River* 53)라고 말하며 예수를 그리워하며 죽는다.

유럽의 기독교는 서구문화에 견주어 아프리카의 전통문화와 종교는 물론 검은 것은 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십자가 위의 악마』에 등장하는 와링가(Wariinga)는 “백색에 비추어진 흑인”(*Devil* 132)을 인식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검은 피부가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렇게 기독교 문화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인들이 스스로 검은 악을 상기하도록 주입되는 인식론적 폭력을 일삼고 있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학습은 더욱 심화되었다.

> 교회는 백색이 항상 선함과 동의어인 데 비해 흑색은 항상 악에 견준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소녀지만, 와링가는 이 사실을 인지한다. 성스러운 로사리 교회에서, 와링가는 자신타 와링가로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그녀는 성모 마리아, 예수, 신의 천사들이 유럽인처럼 하얗다는 것을;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사탄, 악마! 그의 천사들은 그녀처럼 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는 케냐 사람들이 그들의 검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신에 의해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여기게 한다. 서구식 학교에서처럼 교회는 아프리카의 현실을 손상하고 서구의 가치를 돋보이게 한다.
>
> The Church always parallels black with evil while the white colour is always synonymous of good. As a young girl going to primary school, Wariinga notices this fact. In the Church of the Holy Rosary, Wariinga is baptised Jacintha Wariinga, and there she notices that Virgin Mary, Jesus and God’s angels are white like Europeans; and on the reverse side Satan, the Devi! and his angels are black like her. In this way, the Church makes Kenyan people feel ashamed of their blackness and consider that it is cursed by God himself. As with the Western school, the Church puts forward Western values to the detriment of African realities. (Diaw 64)

와링가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백인과 같은 흰 피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수치심을 느낀다. 유럽의 기독교는 검은색과 검은 것들은 못되고 나빠서 인간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어긋나는 일종의 신의 저주라고 여기게 했다. 그럼에도 와링가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 해결점을 찾게 해달라고 "성모 마리아여, 신의 어머니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Devil* 30)라고 기도한다. 이처럼 인종적 차원을 넘어서 사랑과 용서와 포용의 상징인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는 무장을 해제하고 화합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한 여성"(Rubin 1)임이 분명하다.

V. 결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국주의자들에게 아프리카의 기독교 전파는 가장 완전한 통제를 의미했기에 전도하고 부흥시켜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실제로 "유럽의 기독교 선교 활동은 식민지라는 기업을 육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기에 선교사는 식민지 사업의 최고의 상징적인 경영자"(Paustian 2)였다. 이러한 기독교 체제와 사회적 풍속은 아프리카인들을 포섭하며 그들의 문화와 공동체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이에 응구기는 유럽 제국주의자들이 향유해 온 기독교가 식민지 아프리카 내부로 은밀히 잠식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강조하며 그들의 기독교 선교 활동이 아프리카의 땅과 정신을 정복하여 식민지화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거짓된 모략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응구기는 "성경이 아프리카인을 현혹시키는 정치적인 앞잡이"(Paustian 2)였음을 분명히 하며 기독교도들에게 진리와 복음의 전서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로 인정받는 성경이 아프리카에서는 본 목적을 달리하여 식민화를 위한 제국의 전략적 도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

> 성경은 현재의 세계를 무시하고 다음 세계를 기다릴 수 있는 공상의 세계를 만들어냄으로 눈을 멀게 하고 비판적 감각을 둔화시키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정치적 박탈과 물질적 실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도구였다.

> The Bible, then, was a tool of blinding, dulling the critical senses and distracting African people from the real problem—political disempowerment and material dispossession—by producing an otherworldliness that would wait on the next world to the neglect of the present one. (Paustian 2)

이처럼 제국주의자들의 "종교에 의한 이데올리적 폭력"(Ebewo 115)은 성경을 앞세워 아프리카의 식민지화를 가속화 하며 내부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다.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를 점령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괄목할만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것은 곧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저주가 시작된 지점이기도 했다. 실제로 아프리카인들에게 유럽의 식민지라는 굴레는 아프리카 중심적 사고가 아닌 유럽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데, 응구기는 기독교를 통한 전략적 접근 방식이 "마음의 족쇄 노릇"(Ebewo 115)을 하며 아프리카 내부 깊숙이 침투하는데 큰 몫을 차지했음에 주목했다.

하지만 한때 기독교도였던 응구기도 유럽 중심적 사고와 틀에서 완전히 자유롭거나 예외는 아니었다. 어릴 적 기독교도였던 탓에 그의 소설은 "작가의 기독교적 성향이 반영되고 있다"(Kgalemang 218)는 비판과 함께 "유럽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순성과 애매함이 있다"(Kgalemang 223)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응구기는 기독교가 아프리카인들을 침식시킨 유럽의 "이데올로기적 무기"(Ebewo 115)였음에 주시하고 이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기독교 종교와 기독교식 이름을 포기했다. 이후 발표된 그의 소설은 반기독교적 사상과 이미지가 이전 소설에 비교해 극단적으로 전향하여 나타나는데, 이는 아프리카 중심적 정체성에 대한 사고 전환이 이미지를 변화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응구기의 사고 전환은 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데 기독교 교리, 성경, 교회, 선교 활동과 같은 다양한 이미지를 왜곡하고 재해석한 데 있다. 종교는 지배 계급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어야 하고 "성서해석은 과학적이고 객관적"(York 234)이어야 한다. 하지만 응구기는 유럽 중심적 기독교의 철옹성에 도전하여 눈을 감고 기도했기에 끝내 눈을 감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이 도용했던 부정적인 방법을 재도용하여 "작가가 제시하는 이미지나 가치 개념을 상징적으로 대변"(왕은철 270)하는 아프리카식 기독교 신학을 펼치고 있다. 아프리카의 구원을 위하여.

Works Cited

Adeoti, Gbemisola. "Demystifying the Future in Africa's (Un)Vanishing Past: A Study of Ngugi Wa Thiong'o's Novels." *Africa Development / Afrique Et Développement* 41.2 (2016): 1-22. Print.

Black, Joseph. Leonard Connolly, Kate Flint, Isobel Grundy, Don LePan, Roy Liuzza, Jerome McGann, Anne Lake Prescott, Barry Qualls, and Claire Waters. *The Broadview Anthology of British Literature: Concise B*. Third Ed. Broadview P, 2019. Print.

Cook, David and Michael Okenimkpe. *Ngugi wa Thiong'o: An Exploration of His Writings*. Oxford: James Currey, 1997. Print.

Diaw, Djiby. "Elitism in Ngugi wa Thiong'o's *Devil on the Cross* and *Petals of Blood*." *University Gaston Berger De Saint-Louis U.F.R. De Lettres Et Sciences Humaines* 2005/2006. Print.

Dirrie, Waris & Miller, Cathleen. *Desert Flower*. NY: William Morrow P, 1998. Print.
[와리스 디리와 캐틀린 밀러. 『사막의 꽃』. 이다희 옮김. 서울: 섬앤섬, 2005.]

Ebewo, J. Patrick. "Religion as an Ideological Weapon in Africa: A View From the Stage." *The Journal of Religion and Theatre* 5.2 (2006): 115-23. Print.

Esseko, Eliud. "The Bible and Its Interpretation in Africa." *Studies in Humanities* 39.0 (2009): 124-60. Print.

Fanon, Frantz. *Black Skin, White Masks*. London: Pluto P, 2008. Print.

Kgalemang, Malebogo. "Ngugi's Postcolonial Bible: *Devil on the Cross*." *Department of Theology and Religious Studies*. U of Botswana P, 2006. 218-24. Print.

Lee, Dal. "Bible and Literature: Rediscovery of Story." *Christian and Cultural Studies* 17 (2012): 7-26. Print.
[이달. 「성서와 문학: 이야기의 재발견」. 기독교문화연구 17 (2012): 7-26.]

Mandela, Nelson. *Long Walk to Freedom*. Boston: Little Brown, 1994. Print.

McGrath, Alister E. *Historical Theology: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Oxford: Wycliffe Hall, 1998. Print.
[앨리스터 맥그래스. 『신학의 역사』. 소기천, 이달, 임건, 최춘혁 옮김. 서울: 지와사랑, 2001.]

Mofokeng, Takatso. "Black Christians, the Bible and liberation." *Journal of Black Theology in South Africa* 2.1 (1988): 34-42. Print.

Ngugi wa Thiong'o. *A Grain of Wheat*. Oxford: Heinemann, 1967. Print.

_____. *Devil on the Cross*. Oxford: Heinemann, 1982. Print.

_____. *Homecoming: Essays on African and Caribbean Literature, Culture, and Politics*. London: Heinemann, 1972. Print.

_____. *Matigari*. Oxford: Heinemann, 1987. Print.
_____. *Moving the Center*. Oxford: James Currey, 1993. Print.
_____. *Petals of Blood*. Oxford: Heinemann, 1977. Print.
_____. *The River Between*. Oxford: Heinemann, 1965. Print.
_____. *Weep Not, Child*. London: Heinemann, 1987. Print.
_____. *Writers in Politics*. London: Heinemann, 1981. Print.
Park, Jong-Sung. *The Reflection of Post-colonialism*. Seoul: Salim, 2011. Print.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서울: 살림, 2011.]
Paustian, Megan Cole. "'A Real Heaven on Their Own Earth': Religious Missions, African Writers, and the Anticolonial Imagination."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45.2 (2014): 1-25. Print.
Rubin, Miri. "Mary." *History Workshop Journal* 58 (2004): viii-16. Print.
Sanjo, Ojedoja. "Oral Tradition in Adebowale's The Virgin and Ngugi's *The River Between*." *Department of English Faculty of Humanities* (2019): 1-16. Print.
Sicherman, Carol. "Ngugi's Colonial Education: 'The Subversion of the African Mind'." *African Studies Review* 38.3 (1995): 11-41. Print.
Siundu, Godwin. & Wegesa, Busolo. "Christianity in Early Kenyan Novels: Ngugi Wa Thiong'o's *Weep Not, Child* and *The River Between*." *Journal of Language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in Africa* 2.1 (2010): 292-310. Print.
Shomanah, Musa W. Dube. *Postcolonial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Bible*. Chalice P, 2012. Print.
Wang, Eunchull. "Transformation of Ngugi's Novel, and That Meanings: About the Long Journey for *Decolonizing the Mind*." *Weagukmunhak* 50 (1997): 263-85. Print. [왕은철. 「응구기의 소설의 변화, 그 의미: 『정신의 탈식민지화』를 위한 긴 여정에 관하여」. 『외국문학』 50 (1997): 263-85.]
Yorke, Gosnell L. "Prospects of African Biblical Hermeneutics."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41.1 (1997): 223-34. Print. [요크 고스넬. 「아프리카 성경 해석학의 전망」.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 사상』 41.1 (1997): 223-34.]

서은주 (전북대학교 / 강사)
주소: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이메일: sejoo@jbnu.ac.kr

논문접수일: 2022. 03. 28 / 심사완료일: 2022. 05. 10 / 게재확정일: 2022. 05. 13